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0 | 7 | 제128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소공동체 모임 순서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도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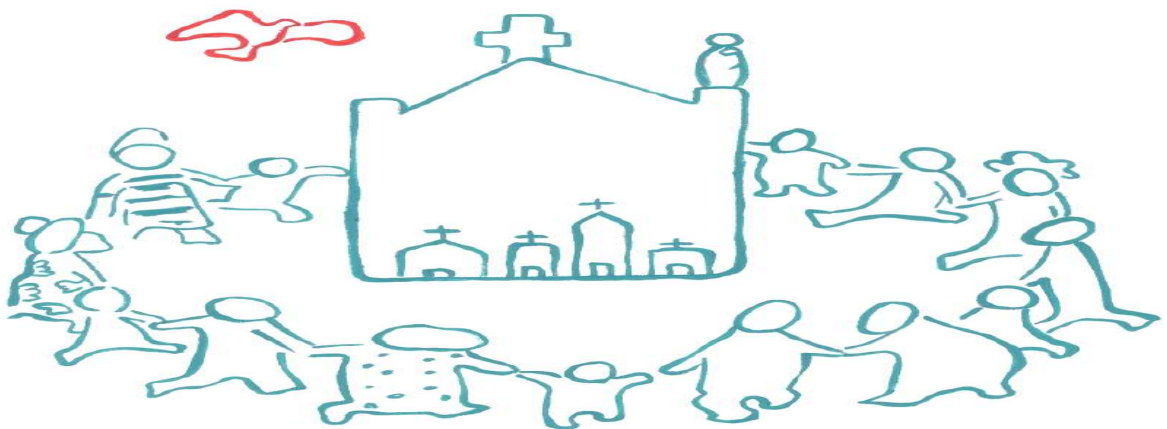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7.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15주일 (7월 12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태 13,1-9)



씨 뿌리는 사람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말수도회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 오르자 타고 말았다. 부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마태 13,4-6.8)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물질이나 욕망으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며 삶 안에서 실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곧 관대한 삶,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돌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마태 13,4)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가꾸는 데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요?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마태 13,9)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요? 사제의 강론에 귀 기울이고 있나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하느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는 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말로 하는 응답입니다. 말 한 마디에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있고, 지옥에 이르는 길도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3장 "온 세상에 전파하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16주일 (7월 19일) 농민주일
가라지의 비유
(마태 13,24-30)



하늘 나라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마태 13,32)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드러나지 않고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성장하여 우리 안에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이 희망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6장 "그리스도 왕국"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4 예수님께서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26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27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29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마태13,25)

우리가 늘 주의하지 않으면 원수인 악마가 우리의 마음에 악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것에 비하여 얼마나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 있나요?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 13,30)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것에 더 마음을 쓰나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깨끗한 사람들' 만의 교회는, 완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모든 공동체들이 겪는 유혹입니다. 밀만 자라고 가라지는 뽑아버리고 싶은 종들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만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발주인은 밀을 해치지 않으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는 종들과는 달리 좋은 씨앗에 자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보장하려 합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많은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주인은 밀이 가져올 수확에 첫째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모든 사물을 선과 악, 진리와 허위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데에도 오류가 섞일 수 있습니다.

누가 천사의 존재를 느낀다면 그는 또한 악마도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특성은 정확히 분별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합니다. 진리의 분별은 그리스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76장 "그리스도 왕국"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함께하는 소공동체

즐거운 소공동체

- 가좌동본당 1구역 4반 반장 이선미 프란체스카 -

가좌동본당은 2010년 축성된 10년의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경상대학교와 진주역, 그리고 혁신도시에 근접해 있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반은 1구역 2반에서 2019년 12월 분반되었습니다.

진주역 주변의 신축아파트로 입주한 12가구 15명이 올해 1월 13일 첫 소공동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며, 계속하여 주변아파트로의 입주가 이어짐에 따라 타 본당에서 전입오신 가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스쳐간 인연도 살려낸다.'라는 피천득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본당, 우리구역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과 기쁨과 슬픔 모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중한 한 가족으로 살기위해 서로 도와가며, '성당에 오면 즐거워야 된다.'는 주임신부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는 소공동체를 만들어 가려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의 확산으로 힘겨운 때 이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 선교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

4. 선교활동 시 유의사항

- (8) 처음부터 어떤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거부를 당하더라도 당연한 듯이 인내와 사랑으로 대합니다. 10번 방문하여 1번 성공을 할 각오를 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합니다.
- (9) 박해와 거부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 의회 앞에서 물러 나왔다." (사도 4,51)
- (10) 말씀을 늘 읽고, 외우고, 실천하고, 전합니다.
- (11)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 (12) 교리 지식이나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는 아는 대로 답을 하고, 대답이 힘든 문제는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다음에 와서 다시 대화합시다" 라고 대답하면서 화내지 말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선교분과장, 사제나 수녀에게 그 교리에 관한 지식을 문의합니다.)

『소공동체 교육 기초단계』(서울대교구사목국,통합사목연구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임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